

한결같은교회는 수도권 영성으로 천국 목회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제10권17호  
통452호

주후 2022년 4월 24일  
창립 2013년 9월 1일

### 예배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매일예배 (월-토)	개인적으로
------	--------	---------------	-------

2022년 표어 : 창세기를 읽자, 아케이나로 읽자(시119:18)

### 교회 위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119:18, 개역한글)

변일국 목사

### 한결같은교회 컨텐츠

블로그	유튜브
<a href="http://bygrace.kr">http://bygrace.kr</a>	<a href="https://bit.ly/3pOgOx4">https://bit.ly/3pOgOx4</a>

34006 대전 유성구 와룡로136번길 75 (봉산휴먼시아) 208동 404호  
010-3412-9201, bygrace.byun@gmail.com, bygrace.kr

## 주일예배

## 오전 11시

시작	주기도문	다함께
찬송	찬24, '왕 되신 주'	다함께
기도		변준석 형제
본문	창2:25, AC.163-165	인도자
설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변일국 목사
찬송	찬23,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다함께
봉헌		권영희 사모
광고		인도자
축도		변일국 목사

### 한결같은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말씀(*The Word*)을 아케이나(*Arcana*, 秘義, 속뜻)로 읽는 교회  
 주님의 신적 인성(*Divine Human*)을 시인하는 교회  
 주님의 새 교회(*New Church*)를 준비하는 교회

### 말씀(*The Word*)에 관하여

성경 66권 중에서 속뜻(*arcana*, 秘義, *internal meaning*)이 있는 성경을 말씀(*The Word*, 총 34권)이라 하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속뜻은 오직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만 있습니다.

구약 : 창, 출, 레, 민, 신, 수, 삿, 삼상, 삼하, 왕상, 왕하,  
 시, 사, 렘, 애, 겔, 단, 호, 율, 암, 읍, 은, 미, 나, 합,  
 슥, 학, 속, 말 (29권)

신약 : 마, 막, 눅, 요, 계 (5권) (AC.10325)

참고로, 서신서들을 비롯, 나머지 성경들(총 32권, 구약 10권, 신약 22권)의 역할은 말씀을 환히 비추는 조명의 역할입니다.

## 금주의 아케이나

세상에는 순진함이 무엇이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악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순진함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 사람 안에 천국이 담기는 바탕이 바로 순진성이라는 사실은 알려져 있지 않다. 순진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선한 것도 제게서 나온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받은 것으로 여기고, 그 근원을 주께 돌린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의 인도를 받기 원한다. 또 모든 선한 것을 사랑하고 모든 진리에서 기쁨을 얻는다. 선을 사랑하는 것, 즉 선을 의도하고 행하는 것이야말로 주를 사랑하는 것이고,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그들이 알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들은 많은 적든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한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어진다는 것을, 즉 조금 필요한 사람은 조금 받고 많이 필요한 사람은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 오직 모든 것을 살피시고, 영원한 것을 섭리하시는 주님만이 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도 않는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그들은 내일 염려라 부르고, 그것은 삶에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잃거나, 못 받을까 봐 근심하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대인관계에서 그들은 절대 악한 의도로 행동하지 않으며 오직 선하고 공정하고 정직한 의도로 행동한다. 악한 의도로 행동하는 것을 그들은 교활함이라 부르며 뱀의 독처럼 기피한다. 그것이 순진함에 완전히 대립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받는 모든 것의 근원을 주께 돌리기 때문에 자기 본성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그들이 자기 본성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만큼 주께서 그들에게 들어가신다. (HH.276, 2788, 김은경 역)